

“영산강 수질개선 위해 광주하수처리장 증설 시급”

11월~2월 갈수기 영산강 유량 59%가 광주하수처리수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1명이 1만개 사업장 점검 단속

10일 열린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영산강 수질 악화의 주된 원인이 광주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원 1명이 1만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단속해야 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인력부족 실태도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1월~2월 갈수기 영산강 유량의 59%가 광주시 하수처리수”라며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광주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대강 수계별 연평균 수질 현황을 살펴보면, 1ℓ 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한강(1.4㎍)의 3배 이상인 4.6㎍으로 4대강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영산강 수질 상태가 가장 나쁘다고 분석했다. 영산강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도 1ℓ 당 8.9㎍으로 한강(3.9㎍)보다 2배 정도 높고,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T-P) 수치도 0.14㎍으로 한강(0.04㎍)의 3배 수준을 보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영산강 분류인 승천보 유량 대비 하수처리수 비율 자료를 토대로 광주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영산강 수질

악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동안 승천보의 평균 유량(초당 30.4㎡) 중 하수처리수의 비율이 4분의 1 수준인 7.4㎡를 차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영산강 물의 70%를 광주시 하수처리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광주시 하수처리장의 처



모니터 바라보는 피감 기관장
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리 용량이 하루 60만이지만 이미 가동률은 103%로 과부하가 걸려있고, 30년이 넘는 노후 시설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올 봄 여수산단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축적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 건강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끝까지 사수를 잘 마무리하라는 주문도 했다.

10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 등 피감 기관장들이 자유한국당 이정우 의원이 질의하며 제시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직원 1명이 1만개 사업장을 단속하고 점검해야 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인력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점검 대상인 7만여개의 사업장을 7명이 관리했다”며 “인력 부족은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환경 범죄와 오염피해 사례가 지속적 발생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명단유출’ 광주 광산구 1금고 제공모 착수

10일 제안서 접수 시작

광주 광산구가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논란을 빚은 1금고 운영기관 재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광산구는 10일부터 이를 통한 제안서를 접수하며, 구금고 약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은 5585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담당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설명회에는 1차 공모에서 경쟁했던 KB국민·농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차기 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농협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간 맡아왔던 구금고를 국민은행에 빼앗겼다. 당시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000만원을 제시했

다. 금리도 1400억원인 예치금을 3년간 맡겼을 때 이자 수익이 농협보다 약 23억 원 많은 2.12%를 제안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농협은 심의위원 명단이 국민은행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으며, 심의위원 명단은 농협에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1심 법원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공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분쟁 당사자 모두 이 판결을 받아들여면서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은 제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광산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지역사회 기여실적과 협력사업계획 배점을 높이고, 예금금리와 이용 편의성 배점을 낮췄다. 명단이 유출됐던 심의위원은 모두 교체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전남도, 지역민·귀농·귀촌인 융화사업 112개 마을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사업에 전남도가 전국 최대인 9개 시·군 112개 마을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내 갈등 예방 등을 위해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융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융화사업을 전국 20개 시·군 232개 마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사업’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상생협력과 상호교류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마을회관 융화 우수사례, 갈등 관리 방안, 역할극 등 주민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남도는 강사로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에 에너지인공지능연구소 들어선다

이용섭시장, 실리콘밸리서 유치 시-인코어드 업무협약 체결

광주와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기업이 손잡고 광주에 에너지인공지능(AI)연구소를 설립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현지시간) 오전 주식회사 인코어드 최중웅 대표이사와 에너지인공지능연구소 설립과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광주시가 10일 밝혔다. 인코어드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회사로, 미국의 큐에스피

(QSP, Quantum Strategic Partner)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기술자금 투자를 받아 설립됐다. 최 대표는 LS산전 사장 출신으로 57세였던 2013년 회사를 창업했다. 1초 단위로 전기 사용량을 검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알려주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미터(스마트 전력 계량기)인 ‘에너지톡’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소개했다. 인코어드는 현재 실리콘밸리와 일본에 연구개발을 운영 중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에 에너지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독립법인을 추가 설립해 에너지 분야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광주와 협력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실리콘밸리 경험을 지혜 삼아 광주에서도 스타트업 중심의 일자리와 기술의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코어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혁신적 경영 마인드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까지 모두 갖춘 최적의 상생 파트너”라며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문화콘텐츠와 함께 에너지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14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 마련

가족힐링이벤트·여성청년농업관 등 운영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10월 17일 개막을 앞두고 박람회 기간 중 총 140여 가지의 체험 프로그램과 35개의 크고 작은 부대행사를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람회 기간이 1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3개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10일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11일간 펼쳐질 140여 가지의 체험행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가족힐링이벤트를 포함해 박람회 주제관인 ‘여성청년농업관’과 ‘농촌체험마을휴양휴보관’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올해는 ‘여성농업마당’,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판매마당’까지 총 5개 마당 12개 전시·체험·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농업 부가가치 향상의 주역인 여성과 청년농업인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농업의 미래 가치를 알리는 ‘여성청년농업관’에서는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농업인 강연회’가 다양한 주제로 펼쳐지고, ‘오호수 명인의 부각 만들기’, ‘이수희 꽃차 만들기’ 등 성공한 농업인들의 아이템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알찬 체험들도 마련된다. ‘농촌체험마을휴양휴보관’에서는 먹거리 생산을 넘어 체험관광으로 각

광받고 있는 전남 22개 시·군 농촌휴양마을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외에도 ‘행복한 동물농장’에서 펼쳐지는 동물들 먹이주기 체험과 ‘첨단기술관’에서 선보이는 첨단농기계 시연, VR체험, 3D라떼 프린터기 체험 등 행사장 곳곳이 보는 전시가 아닌 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여기에 개막 첫 주말인 10월 20일에는 홍보대사 송가인이 출연하는 ‘미스트롯 청춘콘서트’도 예고돼 있다.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전광호 사무국장은 “관람객 45만명을 목표로 농업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 오늘 장흥서 열린다

임산물 먹거리 장터 등 다채

2019년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가 ‘인간의 삶에 숲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장흥 탐진강변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전남도와 장흥군, 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주요 볼거리는 숲과 정원을 느낄 수 있는 주제관, 야외 전시판매 체험장, 전남 시·군 홍보관 등이다. 숲 주제관은 국민 여가 증진과 자연을 기반으로 산림정책을 알리는 전시관이다. 문화작품 입상작 전시, 산림 사진, 대나무·

목공작품 등 산림문화·정책·산업에 대해 다채롭게 전시한다. 전남도 산림 홍보관은 새 천 년 비전인 ‘정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와 연계해 숲에서 휴식을 즐기는 민간정원, 숲길, 산림치유 등을 연출, 관람객에게 산림휴양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산림문화 박람회의 축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군의 날’도 운영, 지자체별 특색화된 경책을 전시한다. 체험거리도 준비했다. ‘전남 임산물 먹거리 장터’에선 임업 후계자가 숲에서 생산한 산부추·표고버섯 등 재료로 만든 파전과 유자막걸리, 순천만막

걸리, 벌교태백산맥 막걸리 등 시군 대표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시·도 임산물관에선 임업후계자가 생산한 우수 임산물을 전시·판매한다. 다양한 숲 속 레포츠를 체험하도록 실내 암벽 등반과 산림 VR체험, 짚라인, 친환경 키즈 놀이방 등을 운영한다. 전남 아열대·난대림의 우수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도 열린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학술발표, 숲 모델 학교, 사유림 소득향상 연구회 총회 등 다양한 학술회의가 준비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민대통합을 위한
2019 영호남 문화대축전
2019. 10.25(목) - 27(토) |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문화를 통한 교류의 장
어울림을 주제로 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영·호남 특산물 전시 판매

주최·주관: 광주일보, 매일신문사
후원: 전라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